

INSTITUTE

KOREA RESEARCH

FOR CONSTRUCTION POLICY



지표로 보는

# 건설시장과 이슈

## 🔍 시장동향 및 전망

### 건설시장

(1분기) 주요 건설지표가 전방위적으로 위축되며, 건설경기 부진 심화  
(2분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공공은 반등이 예상되나, 민간의 부진은 지속

### 전문건설시장

(1분기) 계약액이 감소 추세이며, 상대적으로 하도급공사 부진이 심화  
(2분기)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전문건설업 업황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

### 주택시장

(1분기) 주택시장 침체 속, 서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나홀로 상승'  
(2분기) 주택거래 감소세 영향으로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위축 가능성 증대

## 🔍 이슈 진단

### 1. 건설경기 부진 요인 점검

부진 요인의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 수요 진작을 통해 경기하강 최소화

### 2. 부동산 PF 제도개선 추진상황 점검

부동산 PF 제도개선을 통해 PF 사업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중요

### 3.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필요

지자체 및 지역 연구기관의 대규모 수요조사를 통해 긴급 사업 발굴과 추진

### 4. 정부의 미분양주택 매입, 2008년 vs 2025년 현황 비교

'25년 미분양주택 매입 규모는 '08년에 비해 적으나, 매입 비율은 유사한 수준

# 시장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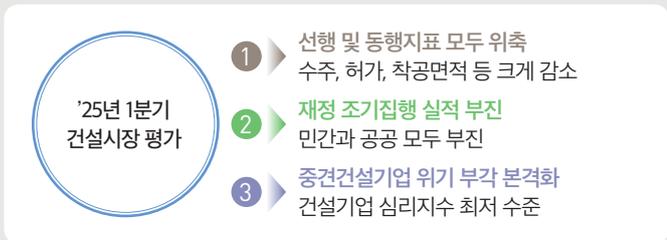
## 거시 경제 여건

- ▶ 한국은행은 2025년 2월 수정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1.9%에서 1.5%로 0.4%p 하향 조정
  - 국내외 주요 기관의 우리나라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
  - 투자은행들의 국내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은 1.6%로 작년 11월 전망치 2.0%에 비해 하방 이동
- ▶ 소비, 투자 등 내수 흐름이 부진한 가운데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제전반의 하방 압력이 증대
  - 여기에 국내 정치 상황,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

구분	상방 리스크	하방 리스크
경제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li> <li>• 정치 불확실성 완화와 경제심리 회복</li> <li>• 예상보다 빠른 AI 반도체 상용화 확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국 통상갈등 격화</li> <li>• 글로벌 긴축기조 완화 지연</li> <li>• 반도체 수출여건 악화</li> </ul>
물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환율 장기화</li> <li>• 통상갈등 심화에 따른 공급망 압력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측 물가압력 악화</li> <li>• 정부의 물가안정대책</li> </ul>

## 건설 시장

### 건설시장 2025년 1/4분기 동향



▶ 선행지표는 물론 동행지표까지 전방위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 건설경기 부진이 심화

### 건설시장 2025년 2/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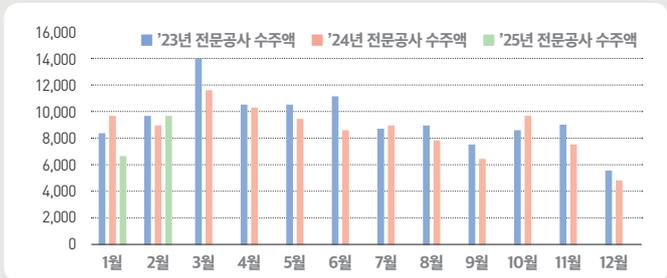
▶ 재정조기 집행에 따라 공공부문은 반등이 예상되나, 민간의 부진은 이어질 전망

## 전문건설 & 생산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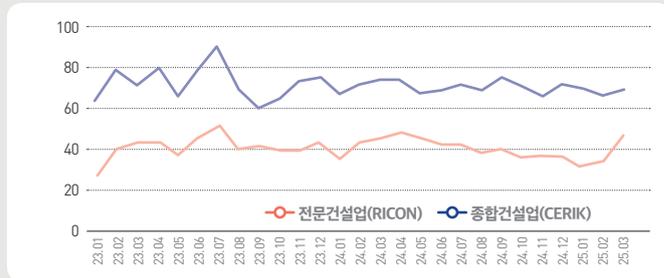
- ▶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감소 추세이며, 상대적으로 하도급공사 부진이 심화
  -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전년동월대비 1월은 27.4% 감소, 2월은 5.5% 증가
- ▶ 전문건설업 경기체감도(BSI)는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업계의 심리 악화를 반영

### 전문건설업 계약액 추정치

(단위: 십억 원)



### 종합 및 전문건설업 BSI 추이



## 주택시장

### 주택시장 2025년 1/4분기 동향

주택가격	전국	하락세
	수도권	보합
	지방	하락세
	서울	상승세
종합		지역별 양극화

▶ 전국적인 주택시장 침체 속, 서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나홀로 상승'

### 주택시장 2025년 2/4분기 전망

주택거래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 감소	거래 위축
시장전망지수	주택가격전망지수 100 하회	하락 전망 우세
종합		주택시장 위축 예상

▶ 지속되는 주택거래 감소세 영향으로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위축 가능성

# 건설시장

## “ 2025년 1/4분기 건설시장: 선행지표는 물론 동행지표까지 전방위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 부진이 심화 ”

- 2025년 1월 발표된 건설지표는 선행지표는 물론 동행지표까지 전방위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 부진이 심화
  - 금액기준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작년에는 기저효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1월에는 25.1% 감소
  - 물량기준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은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올 1월에도 33.2% 감소
  - 물량기준 선행지표인 건축착공면적은 작년 4.8% 증가했으나, 1월에는 32.6% 감소
  - 금액기준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작년 2분기부터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1월에도 26.8% 감소
  - 주택시장 선행지표인 아파트 분양물량은 작년 기저효과로 소폭 증가했으나, 1월에는 미미한 수준
- 민간 건축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정부는 역대 최대 조기집행을 예고했으나,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
  - 2월 이후 건설지표가 일부 개선될 가능성도 있으나, 1월 상황으로만 판단하면 매우 부정적인 상황
- 여기에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등 중견건설사들의 부실이 본격화되고 있어 건설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부각
  - 실제로 건설기업의 심리지수인 BSI지수(한국은행)는 올해 2월 '43'까지 떨어져 수치상으로 역대 최저 수준

### 주요 건설지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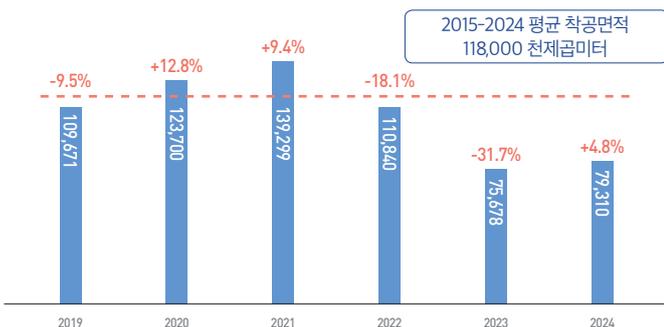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건설수주(경상)	-14.5	-31.2	-43.2	23.2	-18.3	-10.4	20.7	26.8	9.8	10.9	-25.1
건설기성(불변)	17.6	11.6	13.0	2.8	10.7	5.9	-1.3	-7.9	-8.7	-3.3	-26.8
건축허가면적(연면적)	-8.5	-33.5	-32.8	-24.3	-25.6	-20.6	-16.6	4.8	8.6	-6.8	-33.2
건축착공면적(연면적)	-28.7	-46.5	-44.2	1.2	-31.7	-9.6	23.2	21.5	-8.9	4.8	-32.6
아파트 분양물량(만호)	3.5	4.0	5.1	8.6	21.1	5.8	5.7	5.7	7.7	25.0	1.0

자료: 통계청, 국토교통부, 부동산114

## “ 2025년 2/4분기 건설시장: 재정조기 집행에 따라 공공부문은 반등이 예상되나, 민간의 부진은 이어질 전망 ”

- 건설 선행지표와 동행지표는 각각 시차가 존재하는데, 통상 6개월에서 최고 3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
  - 건설수주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했으며, 이전에도 공사비 효과로 금액은 증가했으나 사실상 부진
  - 건축허가는 2022년까지 증가했으나,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허가물량의 착공 전환율이 낮은 상황
  - 건축착공은 2022년부터 감소하여 2024년까지 제대로된 반등을 못하여 2024년 물량은 10년 평균의 67.2% 수준
  - 따라서 수주, 허가, 착공과 같은 선행지표 감소의 시차효과로 당분간 건설경기 부진은 불가피
  - 올해 선행지표의 가시적인 반등이 없다면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우려가 큰 상황
- 올 2/4분기 건설경기는 재정조기 집행에 따라 공공부문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의 부진은 이어질 전망
  - 공사비 불안, 부동산PF 불확실성 지속, 정치적 혼란이 심화될 경우 건설경기 부진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 단기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집행은 물론 추경을 통한 물량 확대가 절실한 상황

### 연도별 건축착공면적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 건설기성 추이



자료: 통계청

## 전문건설시장

### 2025년 1/4분기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감소 추세이며, 상대적으로 하도급공사 부진이 심화

•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25년 1월 6.8조 원, 2월 9.5조 원으로 집계되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

-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전년동월대비 1월은 27.4% 감소, 2월은 5.5% 증가
- 1월의 경우 원하도급공사 계약액이 모두 감소한데 비해, 2월에는 공공물량 효과로 원도급공사가 13.8% 증가
- 공공주도의 발주가 일정수준 지속되더라도 주택 등 시장수요의 부진에 따라 민간공사의 발주가 감소하면서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정체, 감소하고 있는 상황

'25년 1분기 전문건설공사 수주실적(잠정)

시 기	구분	추정 수주액(십억 원)	전년 동월비(%)	과거 3년 동월비(%)
'25년 1월	전문건설업 전체	6,792	-27.4	-17.9
	원도급공사	1,989	-30.5	-22.2
	하도급공사	4,803	-26.1	-16.0
'25년 2월	전문건설업 전체	9,470	+5.5	+2.0
	원도급공사	3,421	+13.8	+11.0
	하도급공사	6,049	+1.3	-2.4

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실적('25.01~'25.02)을 기반으로 추정  
 자료: 전문건설공제조합

### 2025년 2/4분기 전문건설업: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전문건설업 업황 개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즉각적인 업황전환이 쉽지 않은 전문건설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경기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영향으로 공공공사 중심의 원도급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물량상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공사 중심의 하도급공사 계약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다수의 전문건설업체는 수주물량의 감소와 함께 공사대금의 수령이 지연되면서, 운영자금의 부족을 호소
-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이 쉽지 않다는 것과 동시에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도 지적

### 2025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체감도(BSI)는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업계의 심리 악화를 반영

• 전문건설업체의 1분기 건설경기 체감도(BSI)는 최근 3년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당분간은 유의미한 수준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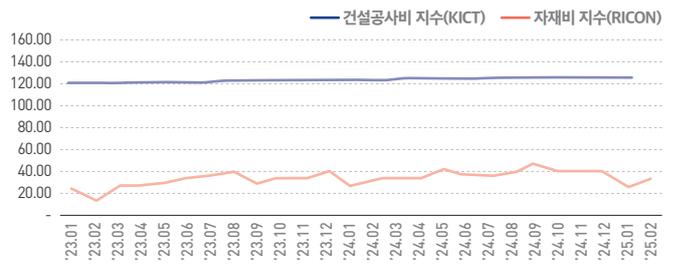
- 최근 전문건설업 BSI 평가는 50을 넘은 적이 한 차례도 없으며, 10월 이후에는 40 미만을 기록
-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 발주물량 및 수주감소를 토로하는 상황이며,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영향도 제기
- 자재가격의 상승과 자재수급의 어려움, 내국인 기술자의 수급불균형, 건설장비 사용단가와 간접비 상승같은 공사소요비용에 대한 부담 등의 애로사항도 여전공극적인 원인은 발주물량의 감소인 것으로 판단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SC-BSI) 비교(최근 3년)



자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와 자재수급지수 비교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월별 사전 전망 및 실제 평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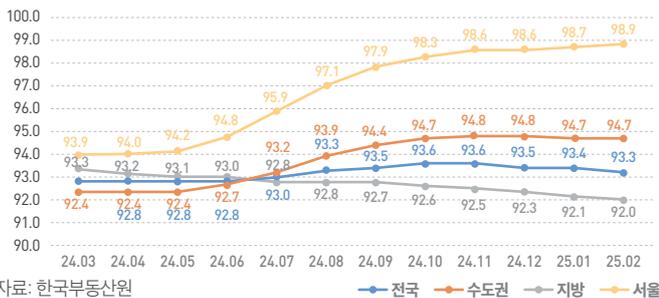
구분	'24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년 1월	2월
월별 전망	46.7	45.3	42.9	45.1	44.6	45.9	41.6	37.4	26.3	38.2
월별 평가	45.3	42.3	42.2	39.4	40.7	36.7	37.4	36.8	32.1	35.0

# 주택시장

## “ 2025년 1/4분기 주택시장: 전국적인 주택시장 침체 속, 서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나홀로 상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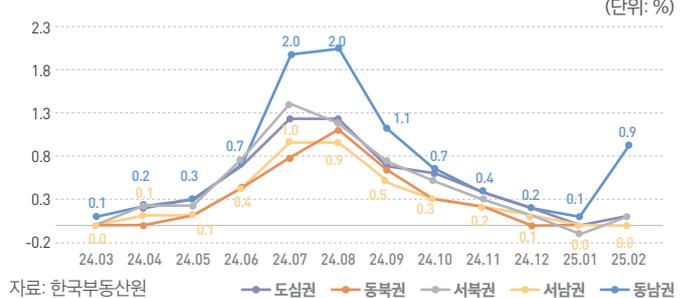
- (주택가격) '25년 1분기 주택가격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며, 주택시장 내 양극화 현상 더욱 뚜렷**
  - 전국과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낸 반면, 수도권은 가격 변동 없이 보합세 유지
  - 특히 서울은 전국적인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도 예외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98.7에서 98.9로 소폭 상승. 이처럼 지역별로 상반된 흐름이 지속되면서 주택시장 내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커지는 추세
-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영향) 서울은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의 주택가격 하락 없이 꾸준히 보합세 또는 상승세를 유지해왔으나, 사실상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가격 흐름이 상이하여 양극화 현상이 뚜렷**
  - '25년 2월 12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자 강남권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서초·강남·송파·강동으로 묶이는 '동남권' 지역은 1월 대비 2월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0.9% 상승
  - 서울 5대 권역별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전월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동남권이 0.9% 상승을 기록한 반면, 도심권과 서북권은 각각 0.1% 상승에 그쳤고, 동북권과 서남권은 보합세 유지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동남권의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은 정책적 영향의 결과이며, 이로 인해 서울 내에서 주택가격의 양극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발생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2021.6월 = 100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서울 5대 권역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전월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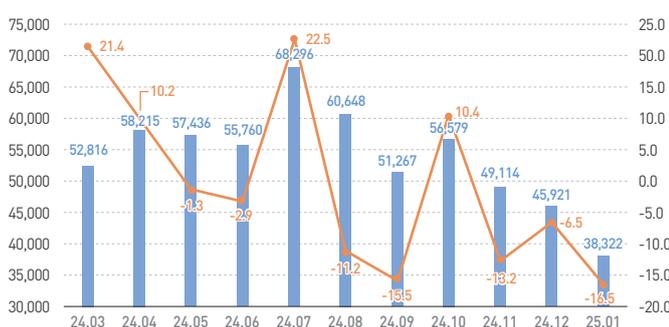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 “ 2025년 2/4분기 주택시장: 지속되는 주택거래 감소세 영향으로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위축 가능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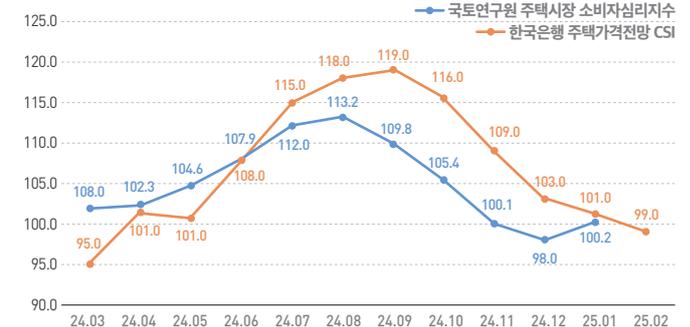
- (주택거래) '25년 1월 기준, 주택매매거래 건수는 전월대비 약 16.5% 감소한 38,322건에 그치며, '23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4만 건을 하회. 주택매매거래 감소 추이는 약 3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24년 11월 13.2%, 12월 6.5% 감소), 이는 주택거래가 위축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
  - 과거의 시장 흐름을 고려했을 때, 주택거래 위축은 통상적으로 일정 시차를 두고 주택가격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2분기에는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 존재
- (소비심리지수 및 주택가격전망)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전망은 '25년 1월 기준 100.20이며,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25년 2월 기준 99.0을 기록**
  - 소비자심리지수는 소폭 상승했으나, 가격전망지수는 하락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주택시장의 실질적인 회복보다는 현재 주택 가격을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으나, 향후 하락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전국 주택매매거래 건수 및 증감률 (단위: 호, %)



자료: 한국부동산원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및 주택가격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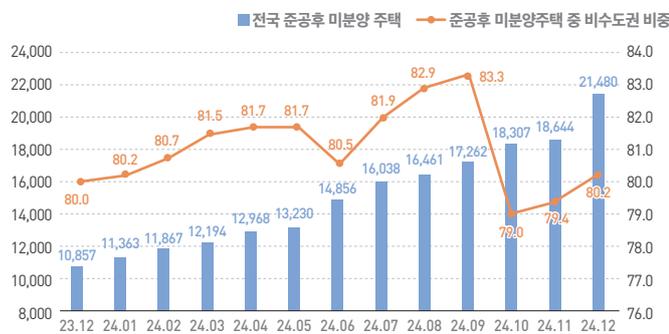
자료: 국토연구원, 한국은행

# 건설·주택시장 이슈 진단

## 이슈 1. 건설경기 부진 요인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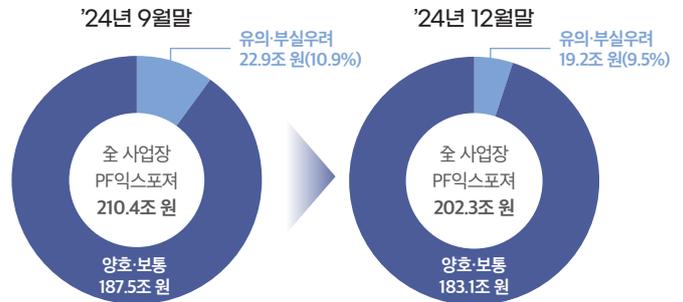
- 건설산업 위기 이유는 다양하나, ①공사비 급등, ②부동산PF 등 자금조달 여건 악화, ③미분양 및 미수금 증가 등이 대표적
- 건설업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요인이 불확실하나, 건설경기 부진 요인이 차츰 완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으로 판단
  - 건설공사비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나, 상승률 자체는 안정화 추세이며 공사비 급등시기(21~22년) 착공물량은 완성 또는 마무리 단계
  - 부동산PF는 그 속도는 빠르지 않고 불확실성이 여전하나, 일부 부실사업장의 정리 및 재구조화를 진행중
  - 건설기업 재무악화 요인으로 작용한 준공 후 미분양, 미수금 증가 등은 단기간 해소가 쉽지 않은 여건
  - 건설경기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 수요 진작 등을 통해 경기하강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건설기업과 정부의 지속적 노력과 관리가 필요

준공 후 미분양주택 추이 (단위: 호, %)



자료: 국토교통부, 미분양주택 현황 보고

부동산PF 정리 및 재구조화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03.19)

## 이슈 2. 부동산 PF 제도개선 추진상황 점검

- 정부는 3월 19일에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작년 11월에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
  - 사업자 보증료 우대 관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 보증료를 할인(HF: '25.3.20, HUG: '25.3.31. 시행)
  - 책임준공 개선 관련하여,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금융업권별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25.4월 중 시행할 예정
  - 금융권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25년 상반기 중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

HF HUG의 보증료 우대내역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기자본비율	보증료 할인	자기자본비율	보증료 할인
10% 초과 20% 이하	0.1%p	10% 초과 15% 이하	5%
		15% 초과 20% 이하	10%
20% 초과	0.2%p	20% 초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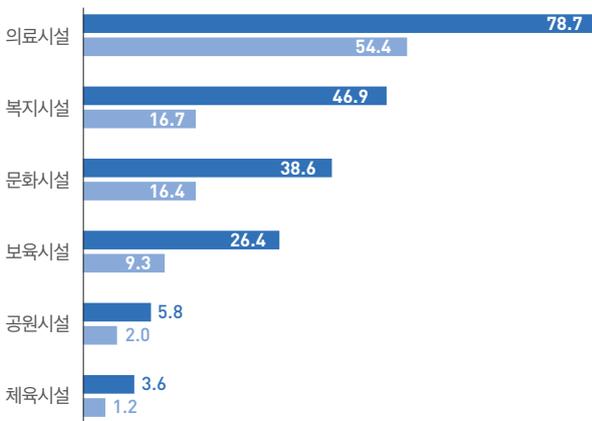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24.03.19.)

- 책임준공 개선방안 1: 도급계약과 달리 연장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PF 대출계약에서의 연장사유를 대폭 확대
  - 천재지변, 내란, 전쟁으로 극히 제한되던 연장사유는 '원자재 수급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 '태풍', '홍수', '폭염', '한파', '지진' 등을 연장사유에 포함하고 총 9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책임준공 개선방안 2: 배상범위의 경우 종전에는 하루라도 책임준공 기한을 초과 시,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인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초과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적 규모로 채무인수를 하도록 하여 시공사의 부담을 완화
  - 특히, 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20%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보다 부담이 완화된 방안을 계약서에 반영
- 책임준공은 건설사가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PF 사업장의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되므로 건설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
  - 부동산 PF 제도개선을 통해 PF 사업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건설시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길 기대

### 이슈 3.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필요

- 최근 지역경제 침체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에 특화된 신규 투자사업 발굴과 실행이 절실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신규 투자사업 발굴이 중요한데, 수도권권의 경우 도심 재건축·재개발사업 지원과 철차 간소화 등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가 필요
  - 지방은 기존 미분양 주택 해소 지원책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와 같은 공공물량 확대가 중요
- 최근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대책을 통해 철도 지하화, 산단, 공모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
  -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규사업 발굴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연구기관의 대규모 수요 조사를 통해 주민 호응도가 크면서 긴요한 사업을 추진
  -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생활 인프라가 '의료시설', '복지·문화시설'이라는 점 역시 고려

국민에게 필요한 생활인프라 중요도 순위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주요 내용



적극적인 정부 정책으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및 내수 활성화 도모

자료: 국토연구원(2024), 주택, 부동산정책에 바란다: 대국민 설문조사

■ 1+2순위 ■ 1순위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02.19.)

### 이슈 4. 정부의 미분양주택 매입, 2008년 vs 2025년 현황 비교

-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25.2.19)」의 후속 조치로 비수도권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3천 호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2008년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였던 당시 상황과 현재의 미분양주택 현황을 비교하여 검토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인해 미분양주택이 증가하자 정부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3년에 걸쳐 미분양주택을 총 7,058호 수준으로 매입. 이는 당시 전국 미분양주택의 약 4.5%에 해당하는 수준임. 당시 준공후 미분양주택수인 40,391호와 비교하면 약 17.5% 수준으로서 정부의 개입은 큰 비율을 차지했던 상황
  - (2025년) '24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주택은 70,173호이며, 이 중 정부가 금번 정책에서 매입하겠다고 밝힌 규모는 3천 호로서 약 4.3%에 해당. 준공후 미분양 21,480호와 비교하면 약 14.0% 수준. 2008년보다는 정부의 개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2008년 당시와 현재의 정부의 개입 비율과 정책 기조는 유사한 수준

정부의 미분양주택 매입 시기별(2008년, 2025년) 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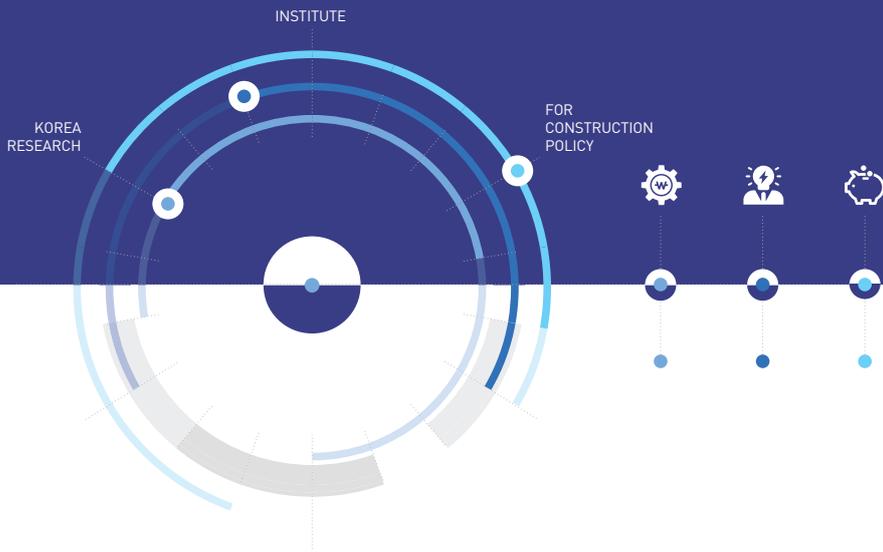
구분		2008년 9월 기준			2024년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수(호)	미분양 매입규모	비율(%)	미분양 주택수(호)	미분양 매입규모	비율(%)	
미분양주택	전체	157,241	7,058	4.5%	70,173	3,000	4.3%	
	비수도권	132,323		5.3%			53,176	5.6%
준공후 미분양	전체	40,391		17.5%			21,480	14.0%
	비수도권	39,198		18.0%			17,229	17.4%
준공후 미분양주택 중 규모 60~85㎡ 주택	전체	20,684		34.1%			13,753	21.8%
	비수도권	19,999		35.3%			11,665	25.7%

주1: 정부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매입한 미분양 주택으로 산정(2008년 5,028호, 2009년 1,317호, 2010년 713호)

주2: 정부가 금번에 발표한 매입 대상 주택 규모는 50~85㎡이나, 자료 구득의 한계로 인해 주택규모 60~80㎡로 한정하여 분석

주3: 2008년 미분양주택 매입 당시, 주택 규모는 60㎡ 이하도 있었으나, 비교의 용이성을 위해 60~85㎡로 한정하여 분석

자료: 국토교통부, 「미분양주택 현황보고」



#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발행일 2025. 3  
발행인 김희수  
발행위원 박선구, 이은형, 정대운, 고하희  
발행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07071  
TEL 02-3284-2600 | FAX 02-3284-2620